

미국의 수의사 공급과잉에 대한 논의를 바라보며...



남 상 섭
건국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수의해부학)
ssnahm@konkuk.ac.kr

2014년 7월 25일부터 29일까지 미국 콜로라도 덴버에서 American Veterinary Medical Association (AVMA) Annual Convention이 열렸다. AVMA Convention은 매년 미국 내 수의사, 수의과대학 재학생, 수의직 관련 종사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기초, 임상, 수의정책 및 일반 정보를 망라한 다양한 정보가 발표되는 학술대회이다. 대회 일정 중에는 직업윤리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특이하게도 대회 기간 중 가장 참석 인원이 많은 월요일(7/28) 10시에 "Oversupply of veterinarians I, II"라는 제목으로 두 시간 동안 주제발표와 토의 시간이 배정되었다. 필자는 주제의 특별함에 이끌려 발표장소에 도착하였으나 발표장의 좌석은 이미 꽉 찬 상태였고, 화상으로 발표와 토의가 중계되는 다른 장소로 자리를 옮겨 발표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발표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았다. 이날 주제발표와 토의는 AVMA 관계자나 미국 수의과대학 교수가 아닌 몇 명의 수의사들로 구성된 발표 및 토론자들이 진행하였다. 특이한 점은 이들은 예전에는 임상수의사, 대학교수 및 수의분야 기업가로서 활동하다가 현재는 수의사의 고유한 업무영역이 아닌 분야, 예를 들어 박물관, 정보회사의 CEO 등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이날의 주제가 발표된 배경은 미국의 수의과대학 졸업생 중 일부가 취업 후 낮은 임금 때문에 대학 재학시 용자 받은 학비를 상환하지 못하고 있어 직업윤리를 벗어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사실이다. 또한 수의과대학 졸업 후 석, 박사 학위를 받은 일부 고급인력도 취업이 되지 않아 수의학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점이다. 특히 AVMA 조사결과 박사학위 취득자 중 병리학, 기생충학, 미생물학(미국에는 전염병, 조류질병, 어류질병 등 세부 전공을 분리하지 않고 있으므로 미생물학에는 관련 전공이 모두 망

라된 것으로 판단됨)을 전공한 전문가의 배출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수의사로서의 자긍심을 잃게 하고 사회적인 기대에 부합하지 못하여 수의사 집단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이 수의사 공급과잉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게 된 배경으로 생각된다.

주제발표에서는 수의사 공급과잉에 대한 하나의 해결책으로서 AVMA가 더 이상 수의학교육기관에 대한 인증을 하지 않는 것이 제안되었다. 그러나 이 대책은 자국 내 수의대 신설을 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효성이 문제가 되었다. 또한 북미 외의 수의과대학 인증을 제한하지는 의견도 있었으나 현실적으로 ECFVG¹와 PAVE² 제도가 존재하는 한 외국인 수의사의 유입을 제한할 수 없다는 제도적 문제점도 지적되었다. 필자의 경험으로 볼 때 이 문제는 미국의 수의사 공급과잉 실태가 사회적인 문제로 일반 대중에게 알려지고 수면위로 부상하게 되면 더욱 활발한 논의가 진행이 되겠지만, 미국사회의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추구와 소수 인종에 대한 배려 정책이 어떻게 논의에 반영될지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다른 주제발표에서는 수의사 중 석,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는 전문가의 인력 수급에 대한 대학원 개편 방향이 발표되었다. 이 발표에서는 미국의 수의사집단이 최소 학부 2-4년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뒤 수의과대학에 입학하게 되고, 그동안 교육과정의 질적 개선으로 졸업하는 수의사의 역량이 크게 높아진 점이 우선 언급되었다. 이는 미국의 수의과대학을 갓 졸업하는 졸업생이 이미 '전문가(specialist)'라고 전제할 수 있어 수의과대학 내에 수의과대학 졸업생을 대상으로 '기술자(technician)'을 양성하는 석사과정의 개설은 무의미하

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한편 공중보건학 석사과정의 경우 향후 사회적으로 그 수요가 꾸준히 요구되므로 유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기타 전공의 석사과정의 경우는 비수의 사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존속시킬 것이 제안되었다.

수의과대학 대학원의 박사과정 개선방향으로는 앞서 언급된 수급과잉 전공 중 병리학의 경우엔 전통적인 부검을 통한 진단병리학 분야의 교육 강화의 필요성이 언급되었다. 미생물학은 수의학 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수의학 외의 분야에서 박사학위 소지자를 배출하고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한편 기생충학 전공자의 공급 과잉은 필자 역시 매우 의외로 생각하였는데 아무래도 미국 역시 예전에 비해 동물의 기생충 감염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적어진 이유 때문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날 발표 중 큰 반향을 일으킨 것은 임상분야의 박사과정에 대한 내용으로 임상분야 박사과정은 폐지하는 것이 제안되었다. 이는 임상수의사는 우수한 임상능력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기 때문에 박사학위 취득보다는 각 분야별로 전문의취득(Board certification)이 우선시되어야 하고, 임상교육을 담당하는 교수 역시 박사학위 취득보다는 전문의 취득을 독려할 것을 요구하였다. 임상수의사의 연구는 전문의 취득 후 필요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 전문의로서의 능력을 더욱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 날 토의의 말미에는 참석자들이 한목소리로 AVMA가 적극적으로 미국내 수의사 공급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 달라는 요청으로 마무리 되었다. 이와 같은 논의를 보면서 필자는 한국의 수의학교육과 수의사 사회의 현실을 다시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었다. 최근 서울시 수의사회에서도 동물병원의 경쟁적인 진료시간 연장 때문에 진료시간 표준화에 대한 설문을 진행한 것을 보았는데, 이와 같은 일은 이미 우리 사회에서도 소동물임상 분야의 포화상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볼 때 우리 역시 장기적인 수의사 공급에 대한 논의와 전문인력 배출을 위한 제도적 장치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에는 이미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된다.

필자는 이번 AVMA Convention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그 동안 국내 수의학교육과 관련된 점을 생각해 보고 시급히 논의가 필요한 것을 이 글을 통해 제안하고 싶다. 수의학교육 부분을 살펴봤을 때, 국내 수의과대학 졸업생의 역량 강화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의과대학 인증을 통해 상당 부

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는 아직 모든 수의과대학의 인증이 완료되지 않았고, 한국의 현실이 감안된 수의과대학 졸업생의 역량에 대한 기준 역시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다. 이 두 가지 현안의 조속한 마무리를 통해 전국의 수의과대학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각각의 수의과대학의 경우 학부 교육과정에 대한 개선, 개편은 활발히 일어나고 있으나 앞으로는 그 논의가 대학원 교육과정까지 확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임상수의학 교육의 경우 아직 전국적으로 시행되지 않는 수련의 및 전문의 제도에 대한 논의가 빠른 시간 내에 공식적으로 시작되어 임상수의사의 역량강화를 실현해 나가길 기대한다.

최근 대한수의사회에서 수의사 신고 및 면허증 갱신을 통해 국내 수의사의 취업 및 활동영역에 대한 전국적인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고 이는 앞으로 수의사회가 해야 할 많은 부분에 크게 도움이 되는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앞으로는 수의사회를 주체로 하여 수의과대학 및 정부가 참여하여 장기적으로 수의사 업무영역에 대해 예견하고 수의사의 수급조절을 논의할 기구를 신설할 필요성이 매우 클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기구의 신설은 장기적으로 우리사회의 수의사 수요를 예측하고 수의사 업무 분야에 따른 수급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앞으로 대한수의사회의 역할이 현안 해결뿐만 아니라 거시적인 안목의 업무를 주도하여 수의사의 이해를 충분히 대변하는 기관으로 도약하길 바라는 바람도 크다.

필자는 대한민국의 수의학 교육의 수준이 수의학 교육 선진국 수준에 비교하여 절대 뒤쳐지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이제는 우수한 자질을 가진 학생과 우수한 교육 수준에 부합하는 합리적 제도가 뒷받침 되어야 할 때가 됐다. 따라서 우리는 장기적으로 수의사들이 사회의 곳곳에서 그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며 사회적인 요구에 부합할 수 있게 하는 다양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

1. ECFVG(Educational Commission for Foreign Veterinary Graduates)는 AVMA의 인증을 받지 못한 수의과대학을 졸업한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평가 과정으로, 네 단계의 과정을 통과하면 북미 수의사면허시험(North American Veterinary Licensing Examination, NAVLE)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2. PAVE(Program for the Assessment of Veterinary Education Equivalence) 역시 AVMA의 인증을 받지 못한 수의과대학을 졸업한 수의사를 위한 수의학교육 동등성시험이라고 할 수 있다.